

사설

포교사단에 거는 기대

조계종 포교사단이 11월 20일 발매식을 갖고 전국 단위의 조직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늦어도 보통 때늦은 일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의 재가 포교사들을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포교불사에 나서게 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새롭게 내실을 갖춘 전국 포교사단의 출범은 몇가지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포교사단 결성이 종단의 주도하에 타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재가 포교사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실질적인 활동내용없이 단체이름만 걸고두고 이따금 성명서 발표할 때만 동원되는 따위의 구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고무적이다.

다음으로 포교사단의 조직시스템을 전국 규모로 결성하되 지역별, 전문기능별로 나눈 점이 돋보인다. 특히 전문기능별 조직체계는 바쁘게 돌아가는 전전화시대에 포교역량을 극대화하는 아주 적절한 포교전략이 될 것이다.

새 천년, 새 시대를 맞아 우리 불교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너무도 많다. 불교의 성숙한 역할은 분명 이 시대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금까지 불교는 어찌했는가.

포교분야만 놓고 보더라도 포교사의 자질에 있어서나 포교의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전근대적이며 시대착오적인 활동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해 왔던 게 사실이다.

더구나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종단 분규의 모습은 포교에 진력해온 많은 스님들과 포교사들의 성과를 허물어 버렸고 그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려 왔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대 사회적 이미지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포교사단의 출범은 조계종의 새로운 출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교사단의 새로운 출발에 맞춰 반드시 뒤따라야 할 과제들을 그래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포교사단에 대한 지원이 포교원 차원이 아닌 총무원을 중심으로 한 전 종단적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총재인 포교원장 스님도 발대식 인사말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19년간 수많은 포교사를 배출하고도 활동지원 체계가 너무나 미흡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이번에 또다시 용두사미나 외화내빈의 단초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포교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전철을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사람들의 근거리 기호의 무상변화함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시대다. 이러한 시대에 예전처럼 진부한 내용, 거리가 있는 방법을 고집한다면 지나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차라리 포교를 전면 포기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셋째, 무엇보다 포교사의 자질과 의지가 중요하다. 포교사는 인격과 덕성, 지식과 활동이 곧바로 모두 포교가 된다. 입으로 부르는 것은 도인이라 다를 바 없는데 실천하는 것은 보통사람보다도 못하다면 포교는 오히려 역효과를 거두고 말 것이다.

모든 단체가 그러하듯이 단체의 성패는 그 조직의 완성도와 그 구성원의 역량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포교사들은 더욱 더 금강과도 같은 신심으로 정진하고 닦아야 할 것이다. 포교조차 실패한다면 무한경쟁시대 불교의 경쟁력은 마이너스가 됨을 모두가 명심해 굳센 의지와 새로운 아이디어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조계종 포교사단 출범

21세기 불교중흥 다짐...초대단장에 김기병씨

조계종 포교사단(총재 정련·포교원장)은 11월 20~21일 대전 경원호텔에서 제1차 전국 운영위원회(팀장)회의를 열고 전국 단위의 조직을 출범시켰다.

지역 운영위원(포교팀장) 및 상임위원, 운영위(상임위) 간사 등 포교사단 간부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포교사단 정관 및 재무정을 제정하고 김기병(55·신광산업 대표이사) 서울·경기지역 운영위원장을 초대 단장으로 선출했다.

포교사단은 또 △포교사례집, 포교지침서, 홍보 발간 등 포교 자료의 축적과 자원화 △사무국의 행정 집산 및 포교사 지원 체계 수립 △제2차 전전화교육 실시, 120개 포교팀 구성 △수련회, 세미나 등을 통한 포교사 신형혁신 △포교지도 조사 및 작성사업 △불우 소년소녀 돌기 후원사업 등 2000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군포교(군6팀 이남형) 사찰포교(금어팀 신홍득) 활동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포교사단의 전국 조직화는 종단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 아닌 포교사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종단의 지원없이 개인적인 원력으로 시간과 돈을 쓰며 포교활동을 펼치면서도 '불교 중흥'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사심없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특히 포교사들이 분야별로 포교팀을 구성, 종적인 지역별 포교사단으로 묶고 다시 이를 전국 단위의 획기적인 전문분야별 활동위원회로 나눠 종·횡으로 포교역량을 극대화시킨 것은 출가 공동체를 보조하는 최고의 재가 수행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총 2127명의 포교사 중 1125명이 팀활동에 참석(52%), 83개의 전문 포교팀을 구성했다.

연회, 세미나 등을 통한 포교사 신형혁신 △포교지도 조사 및 작성사업 △불우 소년소녀 돌기 후원사업 등 2000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군포교(군6팀 이남형) 사찰포교(금어팀 신홍득) 활동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포교사단의 전국 조직화는 종단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 아닌 포교사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종단의 지원없이 개인적인 원력으로 시간과 돈을 쓰며 포교활동을 펼치면서도 '불교 중흥'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사심없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특히 포교사들이 분야별로 포교팀을 구성, 종적인 지역별 포교사단으로 묶고 다시 이를 전국 단위의 획기적인 전문분야별 활동위원회로 나눠 종·횡으로 포교역량을 극대화시킨 것은 출가 공동체를 보조하는 최고의 재가 수행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총 2127명의 포교사 중 1125명이 팀활동에 참석(52%), 83개의 전문 포교팀을 구성했다.



◇김기병씨
포교사단으로 묶고 다시 이를 전국 단위의 획기적인 전문분야별 활동위원회로 나눠 종·횡으로 포교역량을 극대화시킨 것은 출가 공동체를 보조하는 최고의 재가 수행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총 2127명의 포교사 중 1125명이 팀활동에 참석(52%), 83개의 전문 포교팀을 구성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11월20일 전국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새롭게 출범했다.

김기병 신임단장은 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조계종의 수행 가풍이 새로운 세기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불교 흥조에 앞장서겠다"면서 "포교사들이 자신의 포교 원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단장은 서울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 동양나이론 전문이사와 동일인 사업부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봉은사 재직신도로서 동산불교

대학을 졸업, 보이지 않는 봉사 활동을 펼쳐왔으며 포교사단 청소년팀 팀장, 서울·경기지역 운영위원장, 포교사단 중앙위 주비위원장을 맡아 왔다. 한편 포교사단은 전국 운영위원회에 앞서 보문중학교 이범주 군을 비롯 11개 종립중학교 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씩 총 165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불교TV 새 사장에 효강원장

불교TV이사회는 11월24일 허문도 대표이사 사장 해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효강 총지종법장원장을 새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했다. 전체 31인 중 20인(대리참석 2인 제외)이 참석해 불교TV 스튜디오에서 열린 30차 이사회는 또 대표이사 회장 태응스님의 사표를 수리, 이수

덕전문이사를 부사장에 임명하는 한편, 14일 오후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불교TV 노조는 이사회 결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난 노사합의대로 제2개국이 준비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다피아 www.buddhopia.com

효강 대표이사 인터뷰

"경영정상화 가교역할"

"14일 열릴 주주총회 이전까지 유력한 인사를 대표이사로 모셔와 불교TV가 하루속히 경영정상화를 찾도록 가교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 불교TV 대표이사 사장이 된 효강 총지종법장원장의 첫 인사말은 능력있는 투자자를 영입하겠다는 것이었다.

효강 대표이사는 유력한 인사의 조건으로 불자이며 덕망과 경영에 경륜이 있고, 현 정권과 대화도 가능한 인물이라고 제시



하면서 현재 접촉중이며 성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창립이사로 현대사회에서 영상포도는 중생교화의 중요한 방편이라고 강조하는 효강 대표이사는 "짧은 시간이나 대작불사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영란 기자

정대총무원장 당선 '인준'

조계종 원로회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탄성)는 11월20일 총무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30대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당선을 인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직 원로의원 19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총무원장 당선 인준을 결의했다.

원로회의는 또 청하 전계대화상의 임기가 만료(10월 24일)됨에 따라 새 전계대화상으로 동화사 비로암에 주석하고 있는 범룡(范龍) 스님(인더부 3면)을 추천했다. 이에따라 종정 해암스님은 11월23일 범룡스님에게 전계대화상 위촉장을 전달했다. 전계대화상은 단일계단 등 각종 수계산림을 관장하며 계법을 전하는 조계종을 대표하는 계사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집행부인사 완료

정대스님 "소신껏 일해달라"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1월 23일 총무원집행부 부·실·국장 인사를 실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기획실장과 사회국장 문화국장은 25일 임명했다. 호법부장 종지스님에 대해서는 사표를 반려했다. 사서실장은 당분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집행부 부·실·국장들은 20일 정대스님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교육원장 포교원장 및 교육원 포교원 부·국장은 변동이 없다. 집행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무부장 원택(元奭), 총무국장 종원(宗源) △기획실장 지원(智源), 원주(元周) △기획실장 정오(正五), 감사국장

진효(進孝) △재무부장 자승(在承) 임명, 재정국장 성효(成孝) △문화부장 일철(逸徹), 문화국장 태진(泰進) △사회부장 양산(陽山), 사회국장 정남(正南), 상원사 주지, △호법부장 종지(宗智), 호법국장 범승(凡勝), 조사국장 석청(石淸) △사서실·사서차장 지경(智敬) △불교신문사장 영담(映潭)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임명장 수여 후 인사말을 통해 "종단의 어지러움은 집행부가 단정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며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법화종 '법화본종'으로 개명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화종(법주 해후)이 11월 16일자로 '한국불교 법화본종'으로 종명을 개칭했다.

법화본종은 법주 해후스님 승정원장 묘선스님 유지재단 이사장 겸 교육원장 혜경스님 총무원장 위법스님 등 종단스님과 신도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총부 산 법화사에서 새 종명 선언식 및 헌관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일본 법화종의 간부스님 31명이 참석, 축하했다.

유지재단 이사장 혜경스님은 "창종 70주년을 앞두고 종조 불차당(勿差堂) 혜선 대종사의 유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 종도들의 재창종 의지를 만천하에 현명하고 위사단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종명을 개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opia.com)



◇11월16일 열린 한국불교법화본종 헌관식.

현대만평

현대만평



찾아가는 서비스

737-8881

태고종 '선교육 후득도' 제도강화

승적발급 엄격관리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이 '선(先) 교육 후(後) 득도' 제도를 강화한다.

태고종은 11월 3일 수계식을 가진 제23기 합동득도 수계자들부터 내년 5월 실시 예정인 연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승적을 취

득도록 방침을 정했다. 태고종은 11월 18일 서울 종무처 회의실에서 총무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승려교육강화 방침을 결정하고 향후 2~3년내에 종합교인 등방불교대와 선암사 강원종 한 곳을 반드시 졸업해야만 승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선 교육 후 득도' 제도를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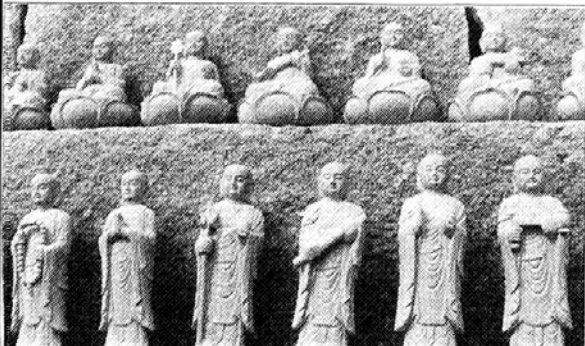
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장 백운스님은 "도제양성이야말로 종단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가장 중요한 불사"라 전제하고 "21세기와 통일된 한국불교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승교화종단의 교역자를 배출해 내는 차원에서 23기 수계자부터는 승적발급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육지장(六地藏) 성상, 석조(石造) 6만불 봉안불사

- 위 치 :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산 128-1번지 도리산 육지장사(母乳井 약수터) 서울 구파발 25번거리
- 주 관 : 삼보사, 도리산 육지장사성지 조성건설회
- 연락처 : 삼보사 (02)352-6406 · (02)3417-3388

- (1) 지장보살 좌상, 입상 1위당 20만원(화강석 예술조각) 크기 15자
- (2) 1조 육지장(6분) 120만원(화강석 예술조각) 크기 20자



록 각자 원불을 봉안하고 큰원을 세워 실천하는 도량으로써 6만 지장불안성지를 장엄하자는 큰뜻으로 여러분의 동참을 권선 합니다.

소원이 있다면 육지장 원불을 모십니다.

현세를 주관하는 대위덕 보살입니다. 미륵부처님이 출현하실 때까지 육도중생(하늘, 인간, 아수라, 아귀지옥, 축생)을 구제하라는 부처님 위촉을 받은 현세를 책임진 보살

무간지옥의 고통받는 중생들까지 구제하며 천번 만번 죄를 지어도 용서하는 어머니 사랑의 자비 보살입니다. 우리를 삶에 있어 정치, 경제, 문화, 농, 공, 상등 각계각층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지장보살의 분신으로 정치 잘하는 보살, 사업 잘하는 보살, 장사 잘하는 보살, 농사 잘하는 보살, 가정살림 잘하는 보살, 문화예술을 잘하는 보살이 되도록

영탑 분양안내 (지장성지 도리산 육지장사)

육지장사는 도리천궁 지장보살님의 회상을 지상에 건설 실현하고자 6만 육지장보살상과 1,000탑, 1,000등(화강석 예술조각)을 조성하여 지장성지의 도량으로 장엄되는 세계유일의 지장성지입니다. 지형은 앞에는 천왕봉이 받쳐주고 뒷산은 일출봉이 도리산을 감싸안은듯 좌측동으로 병풍처럼 둘러싸고, 우측은 힘차게 내려와서 걸림으로 앉았으며 좌, 우쌍정을 이루는 호수가 들쭉이나 좌우에 있어 풍광이 아름다운 명당중의 성지입니다.

차별화된 특수분양 조건

1. 사찰경내 부지에 지장보살상(화강석 예술조각)과 함께 봉안
2. 정리 조성된 공원묘지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사찰경내 스님들 부도탑전과 같은 자연지형 그대로 석조 탑형으로 봉안
3. 기간의 제한없이 영원히 안치 봉안됨
4. 설, 추석, 백중등 모든 크고 작은 사찰 행사때마다 영가를 위한 합동축원과 천도공양이 병행됨

영탑분양 조건

1. 탑형 7자, 3대(6분 유골 안치)
 2. 종탑형 6자, 3대, 2대, 1대(6분, 또는 4분, 2분 유골안치)
 3. 종탑형 5자, 2대, 1대(4분, 또는 2분 유골안치)
 4. 사각탑형 4자, 1대(2분 유골안치)
- ▶위치: 서울 구파발에서 승용차 25분거리, 감사교육원 안내 간판보고(장흥유원지 가는 길, 용미리 공원묘지 가는 길) 저수지, 상, 하 어느곳에서나 600~800m가면 도리산 육지장사 석조 큰간판이 보임 산쪽으로 1000m에 사찰입구



※ 전국 사, 암, 주지스님께 희소식 → 석불상, 석탑, 석등, 영탑조성 국내 최고 영가제공, 육지장사 6만불 조성추진회 (02)3417-3388